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력, 주관적 안녕의 인과적 구조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Control,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ldren

정혜영(Hae young Jung)¹⁾
이경화(Kyeong hwa Lee)²⁾

ABSTRACT

This stud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test caus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s, self-contro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sample of 325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Correlations of observed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control,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goodness-of-fit of the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in the study, -perceived social support having direct effects on self-control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control, retaining the influenc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having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showed fairly acceptable levels.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s increase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nd these supports also increase children's self-control, which indirectly influences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Key Words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기조절력(self-control),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I. 서 론

최근 심리학분야에서는 인간의 행복,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등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감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고 있는 추세이다. Diener(1984)는 인

¹⁾ 대동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²⁾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eong hwa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599-1, Daeyon-3Dong, Nam-Gu, Busan 608-737, Korea
E-mail : khlee@pknu.ac.kr

간에게 최고의 선은 행복이며, 개인의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Diener는 여러 연구들(Diener, 1984; Diener, 1994; Diener, 1996; Diener & Diener, 1995; Diener, Scollon, & Lucas, 200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Emmons & Diener, 1986)을 통해 주관적 안녕 정도가 생활사태의 변화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주관적 안녕 자체가 하나의 성격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안녕에는 개인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 상태와 삶을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고 즐거운 정서적 경험을 갖는 상태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Diener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주관적 안녕 또는 심리적 안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구인을 제시해 왔는데(Kaskdan, 2004; Ryff, 1989; Ryff & Keys, 1995), 박병기와 홍승표(2004)는 이들 선행연구들에 바탕으로 두고 정적 및 부적 효능 안녕감, 정적 및 부적 정서 안녕감, 대인관계 안녕감의 요인들로 주관적 안녕의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주관적 안녕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사회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인 구조나 선천적으로 태어난 개인의 신체적·지적 자원 등이 개인의 안녕감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자기 효능, 자기 확신, 삶의 목표, 유능감, 자기통제 및 조절, 학업성취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변인도 주관적 안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김명

소 · 김혜원 · 차경호, 2001; 문은식, 2007; 오화미, 1998; 윤영신, 2007; 차경호, 2004; Abbey & Andrews, 1985; Emmons & Diener, 1985; Ryff, 1989).

특히 주관적 안녕과 관련 있는 사회적 요인 중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와 지지에 대한 지각,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발달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요인(박현주, 2007)으로 많은 연구관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관적 안녕감의 개인내적인 요인으로서 자기조절력에 대한 연구도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인 상황적 요구와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하고 현재의 혐오적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까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혹은 지지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통제 및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중요한 주변 환경인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받느냐에 대한 인식이 자기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관적 안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의하면 12-18세의 시기는 자아정체감과 역할 혼돈의 단계이며 육체적인 성숙과 더불어 사춘기에 접어드는 단계로 확고한 자아개념이 발달하게 되는 시기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아동은 자아가 성장하여 자아개념이 확고해 지는 시기에 접어드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신체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에 대해 사회 및

개인적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한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긍정적 정서 중심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즉 가설적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관적 안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노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1.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모든 긍정적 자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윤여근, 2003),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밀도, 구성원과의 접촉 빈도 등을 말하고, 기능적인 측면은 개인이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보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지각으로 개념화된다(Cohen & Will, 1985).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개인이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타인에게 지지를 제공받아도 그것을 지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에게 지지원으로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Schaefer, Coyne, & Lazarus, 1981), 일반적으로 지지 지각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주관적 또는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으로 가장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이다. 즉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 교사, 또래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라고 볼 수 있다.

문은식과 김충희(2002)는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인을 대인관계의 질로 보고, 그 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이고 지지적인지에 따라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의 심리적 안녕도 높다는 것이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지지원을 가진 사람의 정신 건강이 양호하다고 결과를 밝힌 연구들도 다수 발표된 바 있다(Barrera, 1981; Broadhead et al., 1983; Caplan, 1981; Cohen & Syme, 1985; Cohen & Will, 1985; Ganster & Victor, 1988; Gottlieb, 1983; Leavy, 1983; Mitchell, Billing, & Moos, 1982; Wallston, Alagna, Devellis, & Devellis, 1983).

이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안녕감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제시했는데, 이를테면 사회적 지지를 높이 지각할수록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며(안정하·조옥귀, 2002; Cohen & Wills, 1985; House & Wells, 1981),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조절(Ryan, Stiller, & Lynch, 1994)을 보다 잘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사회적 불만족도가 낮다(곽금주, 1995; 김명숙, 1995; 이미화, 2000)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이 부모나 교사, 또래친구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과관계의 경로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조절력과 주관적 안녕

자기조절력이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은 하고, 그렇지 않은 능력을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허정경, 2003), 인간은 수많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세상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자기조절력은 자신이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상위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양옥승, 2006), 이러한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적 조절과 동기적 조절, 행동적 조절(양명희, 2000; 정미경, 1999; 허정경, 2003; Kendall & Wilcox, 1979; Pintrich & De Groot, 1990)의 세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긍심, 삶의 목표, 개인의 통제력, 자기조절 동기 등 개인의 심리적 요소들 또한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명소 · 김혜원 · 차경호, 2001; 문은식, 2007; 박지원, 1985; Emmons & Diener, 1985; Ryff, 1989). 아동기 초기에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동은 청소년이 되어서 또래에 비해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기 신뢰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건강한 삶을 경험하며(Mischel, Shoda, & Peake, 1988),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고(Dodge, 1991), 자기조절력이 스트레스 및 행동 문제에 영향력이 높음(윤영신, 2007)을 밝힌 여러 연구결과들 또한 자기조절력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자기조절력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조모형의 경로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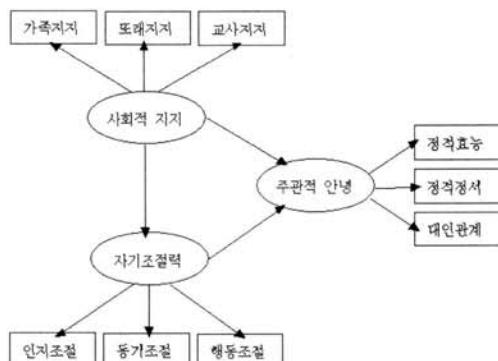
3.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력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의 발달에는 아동의 기질, 인지능력, 성숙 등의 생理性 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는 자기조절과 관련하여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정서적 경험을 주요 연구변인으로 다루어오고 있다.

이를테면,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억제와 충동 통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Kochanska, Murray, Jaques, Koenig, & Vandegeest, 1996; Maccoby, 1984; Power & Chapieski, 1986), 부모의 온정적, 수용적, 민주적 양육태도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김문신 · 김광웅, 2003; 안미경, 1997; 유은희 · 임미옥, 2006; 이정란 · 양옥승, 2003; 주동범, 2002; 홍애경, 2001; Beckwith, Rodning, & Cohen, 1992; Shaw, Keenan, & Vondra, 1994).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서 부모 외에도 중요한 타인들, 즉 또래나 및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의 자기조절과 관련이 있으며(이경님, 1995), 교사나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에 학업적 대처, 관여, 자기 조절, 통제 등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Ryan, Stiller, & Lynch, 1994).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부모나 교사, 또래와의 지지적 관계는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는 자기조



〈그림 1〉 사회적지지, 자기조절력, 주관적 안녕의 가설적 구조모형

조절력은 주관적 안녕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 인과적 구조모형의 경로를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정한 학교급지에 따라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생 340명을 무선표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력 및 주관적 안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일부 응답이 누락된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325

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검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개교의 5학년과 6학년 각 1개 학급의 각 30명씩 전체 6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지지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rera (1986)의 이론에 근거하여 김명숙(1995)이 개발한 아동의 사회적 지지 척도에서 가족, 또래, 교사로부터 받는 도움, 격려, 인정 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지지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2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나 신뢰로우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내적합치도는 가족 지지는 .91, 또래지지는 .89, 교사지지는 .85로

〈표 1〉 연구대상 현황

구분	학교급지	가	나	다	라	계(%)
		남	34	33	63	
성별	여	26	27	58	36	147(45.2)
학년	5	30	30	60	31	151(46.5)
	6	30	30	61	53	174(53.5)
계(%)		60(18.5)	60(18.5)	121(37.2)	84(25.8)	325(100.0)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조절력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정경(2003)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조절의 3개 요인 하에 기억, 지식, 정보의 부호화와 해석, 능력에 대한 신뢰, 과거 경험과의 연계, 목표조정, 충동성, 스트레스, 또래압력, 감정의 10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기조절력의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아주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조절력 척도의 문항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α 가 .88로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인지적 요인이 .84, 동기적 요인이 .83, 행동적 요인이 .77로 나타나 문항내적합치도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3) 주관적 안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병기와 홍승표(2004)가 개발한 주관적 안녕 척도의 5개 하위요인(부적효능 안녕감, 정적효능 안녕감, 부적정서 안녕감, 정적정서 안녕감, 대인관계 안녕감) 중 긍정적 요인의 정적효능 안녕감, 정적정서 안녕감, 대인관계 안녕감을 측정하는 총 1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고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보다 적응적 행동 예언에 효율적(Watson & Clark, 1992)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이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주관적 안녕 척도의 문항내적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는 .90으로 신뢰로우며, 정적 효능안녕감은 .75, 정적 정서안녕감은 .88, 대인관계안녕감은 .72로 산출되었다.

3. 자료분석

먼저,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점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들(GFI, AGFI, NNFI, CFI, RMSEA)을 산출하였다. 최종모형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 분석에는 Windows용 SPSS 12.0 프로그램과 AMOS 7.0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III. 결과분석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의 하위 측정변인들 간에는 상관계수가 $r=.30$ 에서 $r=.56$ 사이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 중 또래지지가 주관적 안녕의 하위요인인 정적효능 안녕감과 대인관계 안녕감과 각각 $r=.56$, $r=.55$ 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의 정적정서 안녕감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인 가족지지 및 또래지지와 각각 $r=.52$ 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자기조절력과 주관적 안녕의 하위

〈표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N=325)

측정변인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인지적 조절	동기적 조절	행동적 조절	정적효능 안녕감	정적정서 안녕감
또래지지	.55***							
교사지지	.27***	.24***						
인지적 조절	.32***	.36***	.25***					
동기적 조절	.33***	.39***	.32***	.66***				
행동적 조절	.38***	.35***	.23***	.36***	.40***			
정적효능 안녕감	.44***	.56***	.30***	.58***	.57***	.43***		
정적정서 안녕감	.52***	.52***	.32***	.39***	.44***	.35***	.60***	
대인관계 안녕감	.37***	.55***	.25***	.49***	.48***	.34***	.59***	.55***

*** $p<.001$

측정변인들 간에는 상관계수가 $r=.34$ 에서 $r=.58$ 사이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안녕의 하위 요인인 정적효능 안녕감과 자기조절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조절과 동기적 조절이 각각 $r=.58$, $r=.57$ 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의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 안녕감과 자기조절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조절과 동기적 조절이 각각 $r=.49$, $r=.48$ 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력의 하위 측정변인들 간에는 상관계수가 $r=.23$ 에서 $r=.39$ 사이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중 또래지지와 동기적 조절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39$).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력,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 그리고 자기조절력과 주관적 안녕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구조모형의 적합도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력, 그리고 주관적

안녕 간의 최초의 가설적 구조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최대우도법 사용을 위한 다변량의 정상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의 Q-Q plot을 사용하여 정상화를 곡선을 살펴보았는데, 측정변인 중 가족지지를 제외하고는 plot 상에서 45° 각도를 유지하는 선이 그려졌으며, 이는 분포의 정상성을 의미한다(양병화, 2006). 아울러 분석의 최소 셀 사례수가 20을 넘는다면 정상성 가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Mardia, 1971)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χ^2 값이 기각되고, GFI, AGFI, NFI, CFI 수치는 기준에 부합되며, RMSEA의 수치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FI, AGFI, NFI, CFI 등의 지수는 .90 이상일 때 좋은 모형으로, 그리고 RMSEA가 .08 이하일 때는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하는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모형은 χ^2 값 (68.87, $df=24$, $p<.001$)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

〈표 3〉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GFI	AGFI	NFI	CFI	RMSEA		
							M	LO90	HI90
값	68.866***	24	.956	.918	.941	.960	.076	.055	.097
기준	$p > .05$		>.90	>.90	>.90	>.90	<.05	아주 좋음	
							.05~.08	양호	
							.08~.10	보통	

주. GFI=적합도지수, AGFI=수정적합지수, NFI=비표준적합치, CFI=비교적합치, RMSEA=근사평균오차제곱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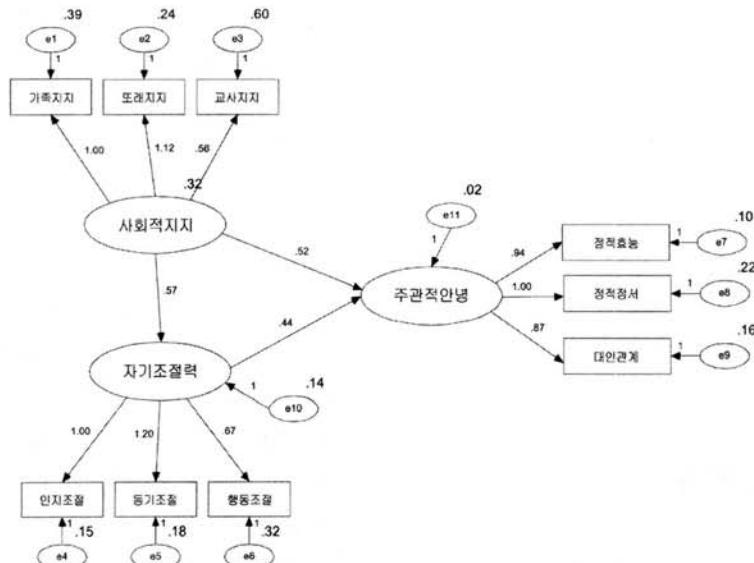
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즉, GFI, AGFI, NFI, CFI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의 90% 신뢰구간을 살펴볼 때 RMSEA의 상한값이 .10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평균 .076으로 양호한 정도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χ^2 값은 표본이 클 경우 모형이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해도 모형과 현실의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 경고신호를 보내므로, 표본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약점이 있다(강병서, 1999). 이 점을 감안하면서 여러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가설적 모형의 적합

도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변인간 인과관계 및 상대적 효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력, 그리고 주관적 안녕과 같은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는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자기조절력과 주



〈그림 2〉 사회적 지지, 자기조절력, 주관적 안녕의 구조모형(비표준화계수)

〈표 4〉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사회적 지지→자기조절력	.57	.07	7.90	***	.65
사회적 지지→주관적 안녕	.52	.08	6.67	***	.60
자기조절력→주관적 안녕	.44	.08	5.73	***	.45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1.00				.67
사회적 지지→또래지지	1.12	.10	10.98	***	.79
사회적 지지→교사지지	.56	.09	5.99	***	.38
자기조절력→인지조절	1.00				.79
자기조절력→동기조절	1.20	.09	13.51	***	.81
자기조절력→행동조절	.67	.08	8.62	***	.51
주관적 안녕→정적 효능안녕감	.94	.07	13.84	***	.82
주관적 안녕→정적 정서안녕감	1.00				.73
주관적 안녕→대인관계안녕감	.87	.07	12.38	***	.73

*** $p<.001$

관적 안녕에 영향을 주며, 자기조절력도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표준화계수를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에 대해 자기조절력보다 사회적 지지가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자기조절력과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각 잠재변수의 측정변수에 대한 영향 역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하위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가 또래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가족지지와 교사지지 순이었다. 자기조절력이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동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이

어서 인지조절, 행동조절 순이었다.

주관적 안녕이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정적 효능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정적 정서안녕감과 대인관계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는 .30 이상이면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바, 잠재변인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표준화 경로계수 모두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4〉의 경로계수와 같은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나타난 변인 간의 직·간접적 효과와 총효과를 분할해서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안녕에 대해 직접적 효과는 .52($p<.01$)이지

〈표 5〉 변인들의 직·간접적 효과 및 총효과

경로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 지지→자기조절력	.57**	.00	.57**	.65**	.00	.65**
사회적 지지→주관적 안녕	.52**	.25**	.77**	.60**	.29**	.89**
자기조절력→주관적 안녕	.44**	.00	.44**	.45*	.00	.45*

만 자기조절력을 경유하여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간접효과 .25($p<.01$)까지 포함하면 총효과가 .77($p<.01$)로 높아진다. 즉 사회적 지지는 단독으로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조절력을 경유하여 긍정적 영향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가족, 또래,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동의 자기조절력에도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주관적 안녕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의 관련 변인을 사회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으로 나누어,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주관적 안녕과의 가설적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에 근거해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나 교사,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력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은 자기조절능력이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 계수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GFI, AGFI, NFI, CFI, RMSEA)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적 양호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잠재변인간의 표준화계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주관적 안녕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자기조절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 간의 직·간접적 효과와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에 대해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보다 자기조절력을 경유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더

욱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력이 주관적 안녕의 관련변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곽금주, 1995; 김명소 외, 2001; 김명숙, 1995; 문은식, 2007; 문은식 · 김충희, 2002; 박지원, 1985; 안정하 · 조옥귀, 2002; 윤영신, 2007; 이미화, 2000; Cohen & Wills, 1985; Cohen & Wills, 1985; Dodge, 1991; Emmons & Diener, 1985; House & Wells, 1981; Mischel, Shoda, & Peake, 1988; Ryff, 1989).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력의 일방향적 또는 상관적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들과도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김문신 · 김광웅, 2003; 안미경, 1997; 유은희 · 임미옥, 2006; 이경님, 1995; 이정란 · 양우승, 2003; 주동범, 2002; 홍애경, 2001; Beckwith et al., 1992; Kochanska et al., 1996; Maccoby, 1984; Power & Chabieski, 1986; Ryan et al., 1994; Shaw et al., 1994).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 및 후속연구에의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교사, 또래의 도움과 격려, 인정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정서 및 대인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중 또래의 지지, 즉 또래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는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기 삶에 있어 또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결과라 하겠다. 즉 학교나 가정에서는 심리적 위기에 처해있는 아동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나아가 또래로부터의 긍정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아동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

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제고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부모나 교사, 또래의 심리적 지원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여주며, 나아가 삶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위기에 놓여 있는 아동에게는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욕구를 적절히 억제하고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중재프로그램을 계획,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주변 환경과 개인적, 심리적 특성 등의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이다. 이를 고려하여 후속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방향을 재구성하여 검증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모형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나 자기조절력 이외의 다양한 환경 및 개인 변인들을 대상으로 인과구조를 구성하여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이론적 모형을 구축해가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강병서(1999).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 무역영사.
- 곽금주(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2(1), 5-16.
- 김명소 · 김혜원 ·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 성개념분석 :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

- 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신 · 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3-13.
- 문은식(2007).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 · 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학회지**, 21(2), 459-475.
- 문은식 ·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박병기 · 홍승표(2004).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3), 159-175.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주(2007). 사회적 지지와 자기 결정성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경(199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하 · 조옥귀(2002). 아동이 지각한 중요한 타인의 기대, 아동의 공격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논집**, 15, 55-74.
- 양명희(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병화(2006). **다면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옥승(2006). 3-6세 유아의 자기조절력 측정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61-187.
- 오화미(1998).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 · 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윤여근(2003).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신(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 변인 연

- 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님(1995).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동아교육논총*, 21, 103-124.
- 이미화(2000). 청소년의 또래지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양옥승(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90.
- 정미경(1999).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동범(2002).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지각된 양육방식이 초기 청소년의 자기통제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23-43.
- 차경호(2004).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허정경(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애경(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bey, A., & Andrews, F. M. (1985). Modeling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1-34.
- Barrera, M. (1981).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 : Assessment issues, In B. 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 Sage.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5.
- Beckwith, L., Rodning, C., & Cohen, S. (1992). Preterm children at early adolescence and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maternal responsiveness from infancy. *Child Development*, 63, 1198-1208.
- Broadhead, E. W., Kaplan, B. H., James, S. A., Wagner, E. H., Schoenbach, V. J., Grimson, R., Heyden, S., Tibblin, G., & Gehlbach, S. H. (1983). The epidemiologic evidence for a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7, 521-537.
- Caplan, G. (1981). Mastery of stress : Psychosocial aspec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8, 413-420.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 Academic Press.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1996). Traits can be powerful, but are not enough : Lessons from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389-399.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Scollon, C. N., & Lucas, R. E. (2004).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In P. Costa & I. C. Siegler(Ed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Vol.15). (pp.187-219). New York : Elsevier Publishing.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dge, K. A. (1991).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and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Fabes, R. A., Calr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Emmons, R. A., & Diener, E. (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 Erikson, E. N.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Ganster, D. C., & Victor, B. (1988).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1, 17-36.
- House, J. S., & Wells, J. A.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logy*, 47(6), 1020-1029.
- Kochanska, G., Murray, K., Jaques, T. Y., Koenig, A. L., & Vandemeest, K. A. (1996). Inhibitory control in young children and its role in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7, 490-507.
- Leavy, R. L. (1983). Social support and compliance : A selective review and critique of treatment integrity and outcome measuremen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7, 1329-1338.
- Maccoby, E. E. (1984).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55, 317-328.
- Mardia, K. V. (1971). The effect of nonnormality on some multivariate tests an robustness to non-normality in the linear model. *Biometrika*, 58(1), 105-121.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Mitchell, R. E., Billings, A. G., & Moos, R. H. (1982).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rogram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 77-98.
- Power, T. G., & Chabieski, M. L. (1986). Child-rearing and impulse control in toddlers : a naturalistic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71-275.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J.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381-406.
- Shaw, D. S., Keenan, K., & Vondra, J. I. (1994).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 Ages one to thre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1-10.
- Wallston, B. S., Alagna, S. W., Devellis, B. M., & Devellis, R. F. (1983).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Health Psychology*, 2, 367-391.
- Watson, D., Clark, L. A. (1992). Affects separable and inseparable : On the hierarchical arrangement of the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89-505.

2008년 4월 30일 투고, 2008년 6월 19일 수정
2008년 7월 11일 채택